**에0608 Note**

**왕복과 왕의 말과 왕관 / 호크마 주석**

성 경: [에6:8]주제1: [모르드개의 등용과 하만의 수치]주제2: [유공자의 받을 상]

▶ 왕의 입으시는 왕복 –

이것은 왕이 입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옷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 입고 있었던 옷 그 자체를 가리킨다(Paton). 왕의 신하는 왕의 인격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 같은 의복을 하사받아 입음으로써, 자신이 왕의 대단한 은총을 받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었다(Paton).

반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 같은 의복을 하사함으로써 그 신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호의를 모든 사람에게 표시할 수 있었다(삼상 18:4).

 이처럼 왕의 의복을 입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특권이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플루타크(Plutarch)는 한 왕이 중신 한 사람으로부터 겉옷을 벗어달라는 간청에 따라 벗어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입는 일은 엄금했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영웅전(英雄傳)에서 언급하고 있다(Artax, 24).

▶ 왕의 타시는 말 - 왕의 말이 신하에게 하사된 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다.

그러나 '왕의 옷'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Paton).

▶ 머리에 쓰시는 왕관 - 이것은 관계대명사 '아쉐르'(\*)에 이끌리는 수식절로서 앞의 '말'을 꾸며준다.

따라서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의 '왕관'은 왕이 쓰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왕이 타고 다니는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말에게 씌워진 치장용 관(冠)임이 분명하다(Rawlinson).

사실,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케 할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내어줄 리는 없었을 것이다(Rawlinson). 그리고 왕관을 요구하는 일은 곧 왕의 자리를 넘보는 역적 행위로 간주되었을 터였다.

이처럼 여기의 '왕관'이 말의 치장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9절과 11절에서 오직 '왕복'과 '말'만이 언급되고 있음을 통해서 분명해진다.